

石油産業의 当面課題와 進路

韓 聖甲

〈湖南精油·副社長〉

精油産業의 当面問題

우리 나라의 精油産業이 当面하고 있는 問題를 整理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汎世界的으로 石油業界가 겪고 있는 共通問題로써 不況에 따른 需要의 低成長 또는 減退로 稼働率低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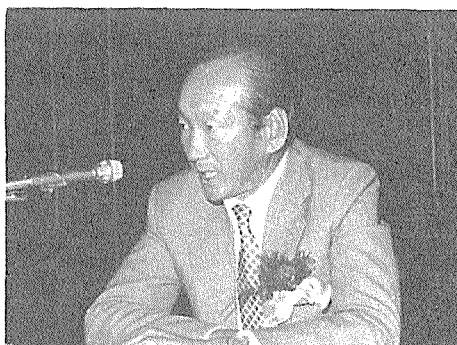
2) 需要減退에 따른 施設の 過剩·遊休化 및 隨伴되는 投資資本費의 負擔.

3) 政府의 價格告示와 變動하는 製造原價(原油費, 換率差損, USANCE費)間的 乖離 및 이에 따른 收益減少 또는 赤字의 累積.

4) 稼働率의 提高로 收益을 增大乃至 赤字를 解消코자 한 各社의 販賣增大 努力은 國內市場에서 過當競爭을 誘發하여 오히려 赤字要因을 累増시키는 惡循環의 連續.

5) 國內價格構造와 REFINING ECONOMICS와의 不均衡이 그나마 精油産業內에서만 問題가 되고, 包容되었던 過去와는 달리 局外者가 精油産業의 PROFIT CENTRE를 蠶蝕하도록 許容되고 있다.

LPG의 境遇가 그러한 例가 된다. 政府가 告示하여 定해진 各製品의 價格은 國內의 諸般與件을 勘案하여 어떤 製品價格은 抑制되고, 그 抑制된 負擔을 다른 石油製品의 價格에 얹어서



策定되어 있다. LPG의 境遇, 나프타, 燈油, 輕油의 抑除分이 LPG價格에 轉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政府가 策定한 精油産業의 全體適正利潤(?)까지도 LPG價格에 얹혀져 있다.

따라서 價格決定 및 告示當時에 推定하였던

需要를 告示된 價格으로 販賣할 수 있어야만 所期의 運營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精油會社가 아닌 局外者가 精油産業의 LPG需要를 輸入 또는 다른 供給源 經路로 蠶蝕하였다면 精油産業에 致命的인 打撃이 되는 것이다.

輸入LPG(他供給原, 即 石油化學 副生 LPG 包含)은 精油産業의 LPG需要 및 市場秩序를 崩壞시킬 뿐 아니라, 精油産業의 또 하나의 PROFIT CENTRE인 揮發油 需要를 代替해가고 있고 精油收益을 蠶蝕하고 있다. 이것은 精油産業에의 打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揮發油를 販賣하는 注油所에게 波及되고 揮發油에서 徵收되던 特消稅의 減收로 波及되었다.

以上の 問題들은 모두 精油産業의 VIABILITY 그 自體, 生存可能與否와 直結되는 것들 뿐이다.

精油業界가 해결해야 할 問題

한편 精油産業이 解決해야 할 것으로 期待되는 問題들을 整理해 보면,

1) 油類의 安定供給을 爲하여 原油를 長期 및 低廉하게 確保해야 한다.

2) 安定的 供給을 爲하여 導入先을 多邊化하고, 産油國과 經協을 強化해야 한다.

3) 脫石油 에너지政策에 따라 石油는

	82	86
千BD	504	548
全에너지%	58.4	46.2

로 下向調整되며, 이에 따른 油種別 消費構造는

	82	86
輕質製品	49.1%	60.6%
重質製品	50.9%	39.4%

로 될 展望인데, 이에 對한 對處로서 輕質原油를 求하거나 重質油分解施設을 設置하여 油種別 需給에 支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公害防止를 爲하여 低硫黃油類의 供給을 擴大해야 한다.

	82	86
輕油—高硫黃	77%	-
低硫黃	23%	100%
重油—高硫黃	89%	29%
低硫黃	11%	71%

등이다.

消費地精製原則

우리 나라가 60年初 油公을 筆頭로 始發한 精油工業은 거의 모든 非産油國이 採擇한 이른바 「消費地 精製主義」에 立脚하여 育成되어 왔고, 이러한 政策을 바탕으로 民間資本이 油精 및 附帶施設에 投資하여 왔다.

消費地精製原則을 擇하게 된 것은 一國의 石油需要를 充當함에 있어 變動要因이 많은 國際石油市場에서 全油種의 製品을 調達함은 價格面에서 뿐 아니라, 安定供給이란 側面에서 RISK가 크다는 判斷에서였으며, 原油를 長期確保하여 國內(即 消費地)에서 精製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判斷에서였다. 이 原則은 過去 20餘年 一貫의 維持되어 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民間資本이 繼續 投資·擴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한

「消費地精製原則」을 短期間에 變更할 수도 없고 變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 原則은 國內의 石油需給의 責任을 全的으로 精油産業에게 義務 짓는 것이기도 하다.

精製施設擴張의 전제

精油産業이 施設을 擴張하였다면, 어떤 前提 위에서 即, 政府의 承認下에서 이루어졌으며, 政府의 承認은 앞으로 政策轉換이 없던가, 있다 하더라도 該當 投資를 不合理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73年, 79年 二次에 걸친 國際石油波動은 石油 依存度를 줄여가야 한다는 에너지政策의 轉換을 不可避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燃料轉換이 比較的 容易한 部門, 即 發電部門의 경우, 新規發電所는 核 및 石炭으로 計劃하며, 油類專燒發電所의 新規建設은 抑制하도록 計劃이 樹立되었었다.

既存 油類燃料發電所를 石炭, LNG 등으로 轉換한다는 것은 雙龍의 6萬B/D 精油施設 및 湖油의 15萬B/D 擴張 當時에 없던 計劃이고, 既存 油類發電所의 燃料를 轉換한다는 것은 精油産業의 基盤을 崩壞시키는 結果가 된다. 燃料轉換을 해야 할 것이라면, 他部門의 重要需要가 轉換하는 需要에 到達할 때까지 留保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發電原價의 合理化는 좋지만, 그에 따른 精油産業에의 副作用 및 그 費用은 어떻게 處理해야 하는냐는 것이 問題가 된다. 一部門의 合理化가 全에너지産業의 合理化와 一致하며, 國家的으로도 合理化에 寄與하는냐 하는 點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過去의 에너지 需給에 있어 經濟規模에 따른 全에너지 需要가 決定되면, 國內에너지, 즉 草木/薪炭, 水力, 無煙炭 生産量을 差減한 에너지 不足을 石油로 充當한다고 計劃하여 別支障이 없었다. 石油需要가 繼續 增加趨勢에 있을 때는 石油의 融通性 때문에 計劃했던 需要보다 많이 增加했건, 적게 增加했건 別支障이 없었다.

脱石油政策의 추진

그러나 脱石油政策을 따르게 된 向後的 計劃時 國內 全에너지 需要에서 國內에너지인 草木, 水力, 國內生産 無煙炭을 差減하고 다시 他輸入 에너지, 즉 核燃料, 石炭(輸入有煙炭/無煙炭), LPG, LNG를 差減한 不足에너지를 石油需要로 策定하게 되겠는데, 이때 그 石油需要로 現 精油産業이 VIABLE한가 與否가 檢討되어 他輸入 에너지와 함께 調整되어야 함을 指摘하고 싶다. 石油需要의 總量이 現水準보다 낮아서는 精油産業이 VIABLE하지 못할 것은 分명한 것이며, 四大油種中 어느 한 油種도 現水準보다 낮지 않게 維持되어야 한다.

脱石油政策을 推進함에 있어 核燃料, 石炭, 再生可能에너지(太陽力, 潮力, 地熱, 바이오매스 등)이 石油代替에너지의 對象이 되는 것은 當然하나 LPG 및 LNG가 果然 石油代替에너지로 取扱될 수 있는지는 疑問이다. LPG는 原油 副生가스이므로 原油와 直結되는 것으로 供給 및 價格面에서 原油 또는 石油製品과 同一한 것이다.

LNG인 경우, 價格은 原油와 같이 ESCALATE할 것이므로 石油代替라고 보기 어려우나, 供給面에서는 15~20年 長期契約에 依하여 成約되므로 安定供給面에서 石油補充對象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가스의 供給安定이라는 것은 石油와는 달리 需給流通面에서의 互換성이 問題가 되므로 慎重을 期해야 한다.

以上 言及한 것은 總에너지計劃에서 石油需要를 決定하기 以前에 考慮되어야 할 問題들이다.

政府의 에너지計劃이 精油産業을 VIABLE하게 維持해 준다고 前提한다면, 石油需要도 '86年 548MBD에서 630~650MBD 水準이 될 것으로 假定되며, 油種別 消費構造도 輕質油需要對 重質油需要가 61/39가 아니고, 52/48로 緩和될 것이다.

消費構造의 輕質化

確保可能한 原油의 質은 重質化되는데 反하여 消費構造가 輕質化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現在의

49/51에서 52/48 또는 說或 61/39로 간다 하더라도 VISBREAKING 程度의 MILD CONVERSION 및 輕質原油確保를 各 精油社가 努力한다면, 不可能한 課題는 아니다.

現在의 石油製品規格은 너무 大別되어 있어서 低規格品도 使用할 수 있는 곳에 不必要하게 高級品을 쓰고 있는 것도 있어서 石油製品 規格의 緩和 또는 多樣化로써도 重質原油에서 보다 많은 輕質製品을 生産할 수 있다. 이는 精油産業의 輕質化對處를 쉽게 해준다.

많은 專門家들이 將次の 精油産業의 消費構造 輕質化對處에 對하여 莫大한 追加投資와 LEAD TIME을 所要할 것이라는 點과 追加投資의 遲延이 招來할 需給上의 問題를 指摘하고 있고, 精油各社도 이 點에 腐心하고 있다.

要는 첫째로 精油産業이 VIABLE할 수 있도록 에너지政策이 調整되고, 둘째 將次 収益性이 保障될 수 있도록 投資與件이 造成되느냐 與否에 달려 있다.

石油製品價格의 자율화

石油製品價格(原油導入을 包含)의 自律化가 이런 投資與件 造成의 始作이 된다고 確信한다. 精油産業 같이 他産業과의 關聯波及度가 큰 部門을 一舉에 完全自律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問題가 있을 것이며, 過去 20餘年 政府의 統制下에서 育成되어 온 精油産業이 完全自律화를 一朝一夕에 消化하여 圓滿히 施行되리라 期待할 수는 없다. 어차피 政府의 指導監督下에 段階적으로 施行되어야 할 것이다.

價格自律化에 따른 첫 課題는 製品別 價格構造의 再編成이 될 것이다. 製品價格과 REFINING ECONOMICS와의 乖離가 除去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消費構造도 再整備될 것을 期待한다.

價格構造編成은 精製코스트의 各油種에의 配分과 特消稅의 根源의인 再檢討가 同時에 이루어져서 國際價格(SPOT 價格이 아니고, 告示價格)에 接近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特히 揮發油의 特消稅은 不正揮發油에 混入될 可能性이 있는 모든 溜分(나프타, 솔벤트, BTX 등)

에 賦課되고, 化學原料로 또는 原目的한 用途에 使用된 分만 特消稅를 免除해 주도록 配慮하여 不正揮發油를 根絶하고, 나프타가 燃料로 浪費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重油分解施設 投資를 誘導하기 위한 重質油 對 輕質製品의 價格差가 必要할 것이며, 適正한 價格差가 施設投資를 誘導할 것이다. 一部 專門家들은 CRACKING 施設의 共

同投資運營을 提議하고 있는데,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CRACKING FEEDSTOCK의 性狀도 같을 수 없고, CRACKING 程度도 다를 것이므로 이 亦是 各 精油社가 自律的으로 對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石油製品價格의 自律化는 早速 施行될 수 있도록 또한 早速한 時日에 定着化할 수 있도록 當局이 誘導하여 주기를 希望한다. *

産油國動向

印尼, 原油價格 일방적 引下

인도네시아의 일방적인 유가인하 결정은 석유 및 증권시장에 혼란을 초래 11월 12일 런던 증권시장의 주요 석유주식가격을 떨어뜨렸으며 현물시장의 유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함께 오는 12월 9일 라고스에서 OPEC (석유수출국기구) 각료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던 나이지리아가 회의개최를 거부할 것이며 OPEC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준유가를 배럴당 현행 34달러에서 32달러로 인하하고 산유량을 지난 8월 현재의 1일 5백 30만 배럴에서 6백만 배럴로 증대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아 석유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나이지리아산유가인하 압력에 반발, 라고스회의 개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외화수확보의 최저선인 하루 6백만 배럴 이하에서 산유량을 억제, 배럴당 34달러의 기준유가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부분의 다른 OPEC 국가들이 이같은 노력을 지원하기는 커녕 할인유가제 실시 및 기준할당량 이상의 석유를 초과생산함으로써 OPEC 가격체계를

혼란에 빠뜨려왔다.

런던석유업계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라고스회의를 몇주 앞두고 유가를 인하했고 압둘·아지즈사우디 석유차관이 사우디 산유량이 하루 6백만 배럴에 도달했음을 공포한 사실을 의미깊은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통상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산유량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감안할 경우 이들 두나라는 차기 OPEC 회의에 앞서 나머지 OPEC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시유가를 인하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일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12일 현물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경질유는 전주보다 1.1달러, 기준유가보다는 2달러 낮은 배럴당 32달러선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북해원유도 수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가격인 배럴당 33.5달러를 밑도는 33.25달러로 떨어졌다. *